

矛 盾

1) 음훈 : 矛 창 모, 盾 방패 순

2) 관련사항 : ① [유사어] 자가당착(自家撞着) ② 출전]《韓非子》〈難勢篇〉

3) 의미 :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

4) 원문 : 楚人有鬻盾與矛者 譽之曰 吾盾之堅 莫能陷也 又譽其矛曰 吾矛之利 於物無不陷也 或曰 以子之矛 陷子之盾何如 其人不能應也.

5) 해석 : 어느 날 초나라 장사꾼이 저잣거리에서 방패[盾]와 창[矛]을 늘어놓고 팔고 있었다. "자, 여기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어찌나 견고한지 제아무리 날카로운 창 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한 다음 이번에는 창을 집어들고 외쳐 댔다. "자,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어찌나 날카로운지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들 속에서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다.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요?" 장사꾼은 대답을 못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 났다. 鬻: (죽)죽/(육)팔다

結草報恩 [맺을 결/풀 초/값을 보/은혜 은] 𦵏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 ① 죽어 혼이 되더라도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 ② 무슨 짓을 하여서든지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겠다.

[유] 刻骨難忘(각골난망)/ 難忘之恩(난망지은)/ 銘心不忘(명심불망)/ 白骨難忘(백골난망)

[속담] 머리털 베어 신을 삼는다. / 털을 뽑아 신을 삼겠다. / 개 새끼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

[출전] 『左傳』

[원문]

秋，七月，秦桓公伐晉，次于輔氏，壬午，晉侯治兵于稷，以略狄土，立黎侯而還，及雒，魏顆敗秦師于輔氏，獲杜回，秦之力人也，初，魏武子有嬖妾，無子，武子疾，命顆曰，必嫁是，疾病則曰，必以為殉，及卒，顆嫁之，曰，疾病則亂，吾從其治也，及輔氏之役，顆見老人，結草以亢杜回，杜回躓而顛 故獲之，夜夢之曰，余，而所嫁婦人之父也，爾用先人之治命，余是以報。

[해석] 기원전 594년 가을 음력 7월에 진(秦)환공이 진(晉)의 정벌을 위해 출병하여 진(晉)의 보씨에서 주둔하였다. 임오일에 진경공(晉景公)이 직에 출병, 적(狄)을 점령하여, 여후를 세우고 돌아왔다. 낙에 이르렀을 때, 위과가 보씨에서 진(秦)의 군대를 격파하고, 진(秦)의 대역사(大力士)인 두회를 포로로 잡았다.

당초에 위무자에게 한 애첩이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다. 위무자가 병에 걸리자 아들 위과에게 분부하여 말했다. “(내가 죽은 이후에) 그녀를 반드시 시집보내야 한다.” 병이 위급해지자 다시 말했다. “반드시 그녀를 순장해야 한다.” 위무자가 죽자, 위과는 그녀를 시집보내며 말했다. “중병으로 정신이 혼란하여, 그분이 정신이 맑을 때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보씨에서 전투를 할 때, 위과는 풀을 엮어서 두회를 저지하는 한 노인을 보았다. 두회는 땅에 넘어져 포로로 잡혔다. 밤에 노인이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그대가 시집보낸 그녀의 부친인데, 그대가 그대의 선친께서 정신이 맑을 때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보답을 하는 것이오.” 《춘추좌씨전》